

#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12월 성탄 감사 예배와 축하 전야제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염두에 두면서 개인의 일정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 - 12월 25일(금) 오전 11시

성탄 축하 전야제 - 12월 2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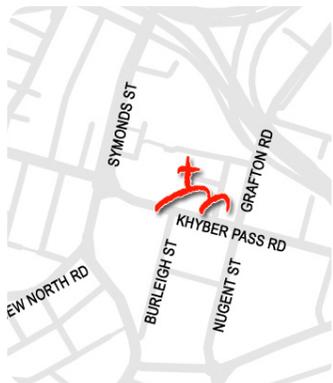
1부 오후 5시 30분: 성탄 축하 찬양  
오후 6시: 저녁식사

2부 오후 7시: 축하 잔치

- 다니엘 기도회가 21일(주일 제외)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강사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과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예배 후 인도자 성경공부가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3시 10분).
- 본당과 연결된 공간을 아동부실로 사용합니다. 한글학교, 문화교실, 방과 후 활동 등 좋은 활용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새 가족 환영회가 오는 28일(토)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섬겨 주실 성도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St David's 교회는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고 중단을 하게 되고 새롭게 시작할 때까지 우리 교회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유튜브에 이단이나 사이버 단체들의 성경공부와 강의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단을 분별하는 11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http://www.koreaniptv.co.nz)



## 11월 교회사역일지

11월 2일 (월) 다니엘 기도회  
11월 8일 (주일) 인도자 공부  
11월 25일 (수) 4남선교회 헌신예배  
11월 28일 (토) 새 가족 환영회  
11월 29일 (주일) 대림절 1

## 11월 기도 순서

11월 15일 (주일) 김교섭 장로  
11월 18일 (수) 다니엘 기도회  
11월 22일 (주일) 박덕철 장로  
11월 25일 (수) 4남선교회 헌신예배

## 11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손조훈, 이기중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45호

2020.11.08

#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마태복음 11:28-30 ---	인도자
✧ 찬 송	--- 29장 ---	다함께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278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이정인 집사
성 경 봉 독	--- 창세기 15:7-21 ---	인도자
찬양대찬양	--- 나 어 느 날 꿈속을 헤매며 ---	나무삼자가찬양대
설 교	--- 설득하시는 하나님 2 ---	이태한 목사
찬 송	--- 384장 ---	다함께
헌 금 기 도	-----	인도자
교 회 소 식	-----	인도자
✧ 응 답 송	--- 310장 (1,4절) ---	다같이
✧ 축 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수 요 예 배

11월 2일 ~ 11월 22일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오후 7시에 본당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 청 년 예 배

금 주 기 도  
채다운 자매  
다음 주 일  
채령 자매

##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뒤에서 보내주시는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분주했던 10월 한 달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은 Covid19 확진자가 72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증은 멈췄으나 이곳 케이프타운은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은밀한 가운데 보내주시는 기도와 응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내외가 몹시 피곤하고 체중도 많이 빠져 지난주에는 장 검사와 피 검사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남은 사명 감당할 때까지 그 은혜의 날개 안에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동역자님들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갚아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 사역소식

**장년부 예배:** 요즘 주일마다 새 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와 떨어져 한동안 떠났던 틴에이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란 것을 절감하며 요즘 더욱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의 크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기 첫 성전 출입:** 미혼모 얀꺄라(20)의 딸(오타리제)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담을 하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아무 준비나 대책 없이 어머니가 되고 앞으로 전개될 인생의 두려움과 후회의 눈물일 것입니다. 교회서 기저귀와 아기 용품을 선물하며 격려했고 장래 목사님이 꿈인 아야본가(12)는 지난 주일에 배에 키보드를 치면서 특송을 멋지게 불러서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이번에 생일을 맞아 용돈과 선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흑인촌 폭동 전과 후:** 전기도 수도시설도 없는 황량한 빈 땅에 수백수천의 판자 집들이 도로 양쪽으로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교회 성도 푸메자와 미미도 이곳에 한 땅을 차지하여 여러 자재를 공급해 주며 처음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정말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화장실이 걱정이 되었었는데 마침 군청에서 간이 화장실을 군데군데 설치해 주었습니다.

### 기도 제목

-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온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 추수 감사절 예배와 모든 예배에 성도들 전체가 감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 교회 컴퓨터 교육 재 오픈 예정, 교회가 더 많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 2020년 11월 1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설득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5:1-7

두려움에 휩싸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15:1)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오히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고(15:2) 물으며 자식이 없는 것에 마음이 상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15:2).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차선책을 간구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비상카드를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엘리에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1) 말로 설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4). 하나님은 나의 엘리에셀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2) 별을 보여주시며 설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신반의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15:5). 룯이 떠나 우울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창 13:14)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상황에서 시선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별은 자손을 의미하기에 현실만 보는 좁은 시야를 넓혀 주시려 별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 시야를 가려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별을 바라보아야만 무한대 공간에 수많은 별들을 채워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리를 잉태하게 못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고후 5:1). 이 땅의 장막만 바라볼 때 삶의 고통과 갈등은 깊어만 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는 것을 인정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시 62:1).

**3) 약속을 주시며 설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모든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도 그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15:5). 그런데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손이라는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갈 3:16). 그렇기에 밤 하늘의 별 보다 더 바라보아야 할 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광명한 새벽별이기 때문입니다(계 3:22).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요 3:16)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설명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롬 6:11)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롬 4:18)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15:6).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만의 엘리에셀을 만드는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설득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5: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